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사역 이야기
사랑의
동행
임성진 엮음
월드미션대학교

사쿠라와 무궁화

• 허종훈 선교사 (MDiv '08) 일본

3월로 접어드니, 사쿠라(벚꽃)가 조심스레 꽃망울을 하나 둘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4월에 공식적 회기가 시작되는 일본은, 대학의 입학식, 신입사원 입사식 등 새로운 출발의 기대와 함께 들뜬 분위기에 싸여 있었을 이 시즌에,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조금은 우울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일본인들은 코로나의 상처를 순식간에 극복하고, 그리고는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듯, 새로운 사쿠라의 시즌을 맞이하여 이곳저곳에서 신입생 혹은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맥주를 들이키며 사쿠라나무 아래서 흥겨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의 참혹한 패전 후에도, 10년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3·11쓰나미 및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에도 일사불란하게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사쿠라 꽃놀이를 즐기는 일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탄과 함께, 현실세계만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 박힌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비쳐지는가 하는 깊은 질문에 빠져들게 합니다.

저는 1963년 시골의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1학년(1982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신문배달을 하던, 때론 옛날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빈병과 깡통을 줍던, 한번은 가게의 빵을 훔쳐 먹던,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을 가장 싫어하던 어린 시절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정규 중학교를 갈 수 없어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했던 어린 시절 마음의 응어리가, 크면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리잡아 저를 지배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정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소박한,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질문의 고민을 간직한 채, 가난 속에서도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저는, 무엇보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대학선배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영대조 기드온 신약성서였습니다. 사실 그 선배를 처음 만난 그날, 저는 불교학생연구회의 신입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입생 서클 안내 부스 근처의 벤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과 고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구원의 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선배로부터 받은 성서를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선배들과의 정규적인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는 이 말씀이 저의 그 본질적인 질문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

게 진학한 대학, 그 후의 직장에 대한 꿈과, 가난한 가정의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거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기도와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4-15).

그 후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며 선교의 꿈을 꾼 지 9년(1993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본 후쿠오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8년이란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 글을 쓰며 잠시나마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진심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신 33:29).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적 성공을 위하여 독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주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하신 주님은 이러한 저에게 구원의 선물과 함께 선교의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 기간 중의 신앙생활관 훈련, 믿음의 선배들과의 교제, 전도

와 양육의 훈련, 군 기간 중의 연단 등을 거쳐서 주님께서는 일본의 선교현장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렸던 학업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하는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와 믿음의 부족으로 실족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정도 돈도, 쌀도, 자동차 기름도 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중에서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내 주머니 사정은 절대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결심을 되새기곤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당일 사용가능한 카드를 만들어 식료품을 사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신용이 제로인 유학생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저의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 모양의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저희 가정을 지켜 주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시절의 한 형제는 퇴직금의 일부를 보내주었고, 예상하지 못한 장학금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세 개씩 하던 아르바이트, 엄격한 교수님 밑에서의 연구, 신혼의 가정, 그리고 막 시작한 선교사역 등 치열한 생존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지하철을 기다릴 때면, '일본사람들이 이래서 과로사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의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처음 석박사 6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26-34).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기간을 통과하고 나니, 바로 그 앞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저의 가정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직업 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된 저를 주님께서는 대학교수로서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력도 없던 저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대학교수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25대 1이라는 일본인들과의 채용 경쟁에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아마 눈을 멀게 했을 수도…><), 택함 받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창 24:50)라는 말씀과 같이, 채용하는 결정권이 심사위원 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는 가정과 선교를 위한 넓은 선교관도 허락해 주시고 영주권 비자도 얻게 해주셔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서두름이나 지체함도 없이, 저와 저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지의 처음 6년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캠퍼스의 대학생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캠퍼스의 식당에서 혹은 유학생/일본인 교류 서클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만나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였습니다. 선

교지 첫해, 교류 서클의 이벤트로 일본의 유명한 불교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5-6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참석자들은 사원 안내원의 배려로 전통차를 마시며 환담을 즐겼는데, 제 눈에 아주 특별한 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담 시간 중에 잡다한 일들을 즐겁게 섬기는 그 학생을, 처음에는 그 사원의 시중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왠지 섬기는 사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주셨고, 그 이후 그를 위해 기도하며, 막 시작한 저희 초라한 신혼 집의 식사 테이블에 틈만 나면 초대하여, 서서히 신뢰관계를 맺으며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 N형제가 지금 28년을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선교지의 7년째 이후에는 대학교수로서 대학생들을 연구 지도하며, IBF(International Bible Fellowship)라는 공식 서클을 조직해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클을 통해서 N형제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현재 N형제는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중등교사로 근무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학과 내의 N교수는 미국에서 20여 년간 연구경력을 가진 탁월한 분으로 경건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채용되던 해, 함께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의 성경공부 중심의 사역과 함께 공적인 설교와 예배를 함께 담당하면서, 신학공부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를 제외한 20여 명의 성도가 모두 일본인이라는 상황

은 저를 더욱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안목을 얻기 위해서 고심하던 차, 본 WMU의 원격과정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좁은 터널 속과 같은 생각과 비전에 갇혀 있던 저를,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넓은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라인'이라는 주제의 교과과정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과 앞으로 이끄실 방향들을 WMU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저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던 세상 학문(물리학)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잡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 4:4)라는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버렸다가 다시 잡은 지팡이'가 저에게는 학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과정은 당시의 저에게는 캠퍼스 선교를 위한 신분 확보로 생각하였고, 일본의 유학생 시절은 비자 연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좁은 생각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확인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주어진 모든 일들 즉 세상일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하듯 성심으로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의 집 마당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무궁화를 이곳저곳에 심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어린 시절의 동네 아이

들 놀이를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제 강점기의 어린아이들 놀이에 저항과 독립운동의 요소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심은 무궁화는 사쿠라와는 계절을 달리하여 핍니다만, 일본인들이 방문하면 한국의 꽃이라 소개하며,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1원짜리 동전 앞면의 무궁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쿠라에 대한 각별한 심미적 감성에 푹 빠진 그들에게 여전히 무궁화는 생소하거나 관심 밖의 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유명한 사회학자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가 말한 "일본교(日本教)"라는 "무의식의 인간중심의 조화(調和)의 세계"에 푹 잠긴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 가르침이 너무 생소하여 그들의 인간중심의 세계에 조화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본에 들어온 한인 선교사들이 수없이 받게 되는 유혹, 즉 "그놈의 사쿠라(일본교)를 다 뽑아 버려야지" 하는 성급한 마음과, 또한 "역시 무궁화(한국적 기독교)를 팍팍 심어야지" 하는 과거의 성취 경험에서 오는 욕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쿠라(日本教)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그들에게 진정한 무궁화(無窮花)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꽃이 아니라,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요나의 마음으로 하는 선교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온전히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욘 4:9-11).

1억 2천만의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이곳에 뼈를 묻을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학 연구실의 창가 너머 막 피기 시작한 사쿠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 재직 중인 대학 내의 성경공부 모임과 지역의 현지인 교회(무나카타 메구미 교회)를 섬기며, 이 척박한 일본 땅에 영적인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현지인 지도자 양성과 현지인 교회의 이름다운 모델을 세우는 일에 남은 생을 드리고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두 아이를 기르는 벅찬 생활, 특히 6년간 유학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생선가게 점원, 슈퍼마켓 반찬가게의 잡일 등을 마다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인내하고 함께해 준 사랑하는 아내(최우선 선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챙겨 주지 못한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자라서 일본의 직장인과 대학생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있는 두 아들(찬영, 대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신 김용식 형제님, 선교사 파송과 신학 공부 등 많은 기회를 열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세계로선교

회 변희관 목사님, 일본선교의 파이오니아로서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석재 선교사님, 원격 신학 공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WMU의 고 임동선 총장님과 임성진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그리고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여 년간 함께 동역하는 무나카타 메구미 교회의 나카가키 선생님(N교수)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동고동락한 니시지마 형제(N형제)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하여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가족사진(왼쪽부터 장남 찬영, 차남 대성, 아내 최우선, 필자)–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가족여행 중(2016년)

일본 다다미 방의 선교관에서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자녀들과 함께(왼쪽에서 첫 번째가 N형제)(2019년)

필자가 근무하는 국립 규슈공업대학의 성경공부 서클(왼쪽에서 네 번째 여학생이 N형제의 아내)(2011년)

일본 현지인 교회–무나카타 메구미 교회(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N교수, 빨간 모자가 N형제)(2019년)

필자가 근무하는 국립 규슈공업대학의 Huh–Shimizu Lab의 학생들과 사쿠라 꽃놀이(전열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필자)(2019년),

일본 현지인 교회–무나카타 메구미 교회 개척 10주년(후열 왼쪽에서 첫 번째가 N교수, 네 번째가 최우선 선교사, 2, 3열 왼쪽이 N형제 부부)(2010년)